



존슨 매티(Johnson Matthey)의 연혁 요약

설립 초기

1817년, 퍼시벌 노턴 존슨(Percival Norton Johnson)은 런던 해튼 가든(Hatton Garden)에 금감정소를 설립하였다. 존슨은 감정소를 설립하자마자 정확한 감정 결과로 좋은 평판을 듣게 되고 이후 자신이 감정한 금괴에 대한 구매 제안을 받게 되었다. 존슨은 곧 소규모 금정련소를 차리게 되고 이후 이 곳에서 백금과 팔라듐까지도 처리하게 되었다. 1851년, 조지 매티(George Matthey)가 존슨(Johnson)에 합류하면서 존슨 앤 매티(Johnson & Matthey)라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기술력과 완벽추구의 결과로, 1852년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의 공식 감정소로 지정되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공식 제련소 및 제련소로 지정되었다.

[Click here to review key historical developments between 1817 - 2004](#)

백금 제조 기술 발전 초기

1860년, 퍼시벌 노턴 존슨(Percival Norton Johnson)이 은퇴한 후 1891년에 사명을 존슨 매티 앤 컴퍼니(Johnson Matthey & Company)로 변경하였다. 백금 제조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백금 용해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 방법은 20세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조지 매티(George Matthey)는 또한 접합부를 완벽히 용접할 수 있는 백금 용해 용접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의 결과로 존슨 매티(Johnson Matthey)는 황산 제조 및 농축에 사용되는 백금 보일러 전문 제조기업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개발 기술은 백금을 산업용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었고 현재 당사의 주요 관심사이다.

1923년, 엄청난 매장량의 백금이 남아공 트란스발(Transvaal) 주의 러스텐버그(Rustenburg) 지역과 린덴버그(Lydenburg)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존슨 매티(Johnson Matthey)의 야금기술자들은 광석에서 백금족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로 1931년에 백금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였다. 백금을 추출하기 위해 브림스다운(Brimmsdown)에 제련소 및 전해 정련소가 건설되었고 여기서 추출된 백금은 최종 정련 작업을 위해 해튼 가든(Hatton Garden)으로 보내졌다.

세계적 성장

2차세계대전 이후 당사는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 지사와 캐나다 지사 뿐이었으나 이후 전세계에 걸쳐 지사 및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1957년, £1,000,000의 자금을 들여 로이스톤(Royston)에 새로 건설한 정련소는 당사의 전체 백금 정련 작업의 최종 단계를 총괄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블라이스 컬러 워크스 리미티드(Blythe Colours Works Limited)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안료와 세라믹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부문에 있어서 그룹의 기업 활동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도자기 염료, 백색 및 에나멜 유약, 도자기 및 타일용 초벌 착색제 및 슬립 착색제, 금속 및 유리용 에나멜 등과 같이 점차 그 제품이 다양해졌다.

존슨 매티 그룹(**Johnson Matthey Group**)은 1965 년에서 1967 년까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국 내의 일부 계열사를 제조 및 금융 활동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분사하였다. 이와 같이 분사된 기업으로는 존슨 매티 케미컬 리미티드(**Johnson Matthey Chemicals Limited**), 존슨 매티 메탈스 리미티드(**Johnson Matthey Metals Limited**), 존슨 매티 프린티드 프로덕츠 리미티드(**Johnson Matthey Printed Products Limited**), 블라이스 컬러 리미티드(**Blythe Colours Limited**), 존슨 매티 뱅커스 리미티드(**Johnson Matthey Bankers Limited**) 등이 있다. 1974 년, 본사의 각종 기능을 계열사로 이관하였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해튼 가든(**Hatton Garden**)의 구본사를 떠나 사우스게이트(**Southgate**)에 새로운 그룹 본사를 두게 되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촉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1974 년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 촉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로이스톤(**Royston**)에 건설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호주, 브뤼셀 등지에 각각 1 곳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당사는 LP 0X0 하이드로포밀레이션 과정 부문 커크패트릭 케미컬 엔지니어링 어치브먼트 어워드(**Kirkpatrick Chemical Engineering Achievement Award**), 자동차 촉매 연구 부문 퀸즈 어워드 포 테크놀로지(**Queen's Award for Technology**), 퀸즈 어워드 포 엑스포트 앤 인바이런멘탈 어치브먼트(**Queen's Awards for Export and Environmental Achievement**) 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과도기

1983 년에서 1985 년까지 당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존슨 매티 뱅커스(**Johnson Matthey Bankers**)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미국 보석 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1984 년 가을,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에 매각하였다. 신임 회장, 닐 클라크(**Neil Clark**)와 신임 CEO, 유진 앤더슨(**Eugene Anderson**)이 선임되면서 격변기가 예고되었다.

재정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우스게이트(**Southgate**)에 있는 본사를 폐쇄하고 해당 기능을 계열사로 이관한 다음 다시 해튼 가든(**Hatton Garden**)의 그룹 본사로 자리를 옮겼다. 1987 년, 모든 직원의 전문 능력 수준을 개선하고 그룹의 전세계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그룹 전반에 걸쳐 품질경영(**Total Quality**) 전략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전자소재를 미국에서 매입하고 화학제품을 독일에 판매하면서 1989 년과 1990 년에 걸쳐 이사회를 구조조정하고 당사의 비용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데이빗 데이비스(**David Davies**)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관리팀이 구성되었고 데이빗 데이비스(**David Davies**)는 1994 년까지 회장 겸 CEO 로 재직하였다. 1991 년 2 월, 그룹 본사를 해튼 가든(**Hatton Garden**)에서 트라팔가 광장 콕스퍼 스트리트(**Cockspur Street**)로 옮겼다.

이 시기에 PGM 정련소 및 화학공장 뿐만 아니라 남아공, 멕시코,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등지에 건설된 자동차 촉매설비에서도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전자산업 제품에 대한 신속한 투자와 염료 및 세라믹재료 부문에 있어서 쿡슨(**Cookson**)과의 합작 투자는 1990 년대의 활동기를 대표하는 사건이었다.

미래를 향해

2000년에 이르러 쿡슨 매티 세라믹스 JV(Cookson Matthey Ceramics JV)를 쿡슨(Cookson)으로부터 매입하고 일렉트로닉스 머티리얼스 디비전(Electronics Materials Division)을 얼라이드 시그널(Allied Signa)에 매각하면서 JM (촉매, 귀금속, 신화학물질)의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98년에 선임된 CEO, 크리스 클라크(Chris Clark)의 지휘 아래 주요 전략 사업을 인수하여 촉매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용 제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그룹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2001년, 팜에코 레보라토리즈(Pharm-Eco Laboratories)의 인수를 시작으로 2002년, ICI의 시네틱스 디비전(Synetix Division), 캐스케이드 바이오켐(Cascade Biochem), 아보카도 리서치 리미티드(Avocado Research Limited)를 인수하였다. 이와 같은 그룹의 중점사항을 반영하듯이 그룹은 4개의 글로벌 사업부(촉매, 귀금속, 염료 및 코팅제, 제약원료)로 재편되었다.

2004년 7월, 닐 카슨(Neil Carson)이 CEO를 맡으면서 존슨 매티(Johnson Matthey)는 그룹의 전략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되었다. 새로운 설비와 생산절차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주요 제품 영역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료 전지와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여 21세기에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 받게 되었다.

현재의 존슨 매티 Plc(Johnson Matthey Plc)는 기술력을 활용하여 귀금속 및 기타 재료를 부가가치성 제품으로 탄생시킴으로써 첨단재료기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존슨 매티(Johnson Matthey)는 연구개발 및 신기술에 투자하여 기존 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며 각종 인수를 통해 성장함으로써 주주, 직원 및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